

# 불국사의 강학 전통

한상길\*

## • 목 차 •

- I. 머리말
- II. 불국사의 역사와 강원
- III. 불국사 승가대학
- IV. 불국사의 강주와 강사
- V. 맺음말

---

\* 동국대 불교학술원 조교수.

© 『大覺思想』 제36집 (2021년 12월), pp.117-158.

## 한글요약

불국사는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이다. 찬란한 신라불교 문화의 정수를 간직하여 신라의 역사와 전통, 나아가 한민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으뜸가는 문화유산이다. 불국사의 이러한 위상은 외적인 가람의 중창과 더불어 내적으로 수행과 교육을 조화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사찰의 역사와 문화는 일상의 예경과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행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수행공간으로서의 불국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절의 교학 연찬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고자 강학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교학 연찬은 강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강원은 승가교육을 대표하는 곳이다. 불교수용과 함께 강원이 존재하였지만, 이 ‘강원’이라는 정식명칭이 확인된 사례는 지금까지 9세기 말의 불국사 기록이 최초이다. 처음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만큼 불국사의 강학전통이 오래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근대 불국사의 강원교육은 1913년부터 확인된다. 현대들어 강원은 197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까지의 대대적인 중창을 토대로 도제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월산의 발원에서 비롯되었다. 이보다 앞선 1960년에도 행자와 사미를 망라한 강원교육을 진행하였고, 많은 수행자들이 몰려들었다. 1975년 ‘불국사승가학원’으로 다시 개원하였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의 교육체계에 따라 승가대학으로 재편성하면서 1976년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수백 명의 젊은 승가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강학 전통의 중심에는 강주와 강사가 있었다. 선지식을 찾아 배움을 청하는 전통은 교학도 다를 바 없어 빼어난 강사를 찾아 많은 이들이 불국사 강원에서 경을 펼쳤다. 통일신라의 표훈과 유가, 1913년의 송설우, 1960년의 진용, 1961년의 설봉, 1966년의 김철수, 1975년의 범공, 1978년의 범룡, 1979년의 운기, 1982년의 채선, 1984년의 상목, 1994년의 용문, 1996년의 지옥, 2002년의 응각, 그리고 현재의 승가대학원 원장 덕민, 승가대학 학장 정수, 학감 성화, 교수 상락, 일선 등이다. 불국사의 강학 전통은 이들의 강석에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 주제어

불국사, 강원, 승가대학, 불국사승가대학, 삼성강원, 표훈, 유가, 원측, 월산, 운기, 덕민

## I. 머리말

불국사는 우리나라 사찰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 중의 하나이다. 찬란한 신라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하여 신라의 역사와 전통, 나아가 한민족의 문화를 대표하는 으뜸가는 문화유산이다. 사실 불국사가 지금처럼 한국의 대표 사찰로 자리 매김한 것은 불과 백 년 정도에 불과하다. 통일신라 8세기 중엽에 창건한 이래 유구한 역사가 전개되면서 수많은 중수와 중건, 중창의 과정을 거듭하였다. 때로는 이민족의 침탈을 맞아 폐사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조선시대 역불의 사회에서는 근근이 범등을 이어왔다. 근대들어 1910년 이전 불국사의 가람은 크게 훼손되었고, 사격도 저하되었다. 일제가 모든 사찰을 본말사로 구획하면서 절은 기림사의 말사로 편입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이후 불국사의 사격 현장을 위한 노력과 관광 붐이 일어나면서 절은 옛 신라의 명성을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고도 경주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특히 불국사와 석굴암은 신라문화의 실체를 확인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이 되었다. 1970년대 들어 국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발굴, 중창을 거치면서 절은 신라문화의 정수로서의 위상과 사격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

불국사의 이러한 위상은 외적인 가람의 중창과 더불어 내적으로 수행과 교육을 조화시킨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절은 기본적으로 참배와 수행의 공간이다. 예배와 공경을 위해 불상과 탑을 봉안하고 전각을 조성한다. 일상의 예경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더불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참회와 수행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즉 역사와 문화는 일상의 예경과 수행을 통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수행자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수행 공간으로서의 불국사에 주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절의 교학 연찬에 관한 역사를 찾아보고자 강학 전통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를 위해 역사 속에 등장하는 강원과 교학의 전통을 탐색하고, 현재의 승가 대학 현황을 통해 불국사의 강학 전통이 오늘날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곳에서 교학을 펼친 강사들의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불국사가 과거의 문화유산을 간직한 명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강학 수행이 살아 숨쉬는 수행도량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II. 불국사의 역사와 강원

### 1. 최초의 강원 명칭, 불국사 삼성강원

삼국시대 불교의 전래와 함께 사찰에 강당이 들어서고, 이곳에서 교학을 강설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강원’이라는 정식명칭이 등장하는 것은 1342년(충혜왕 3)에 조성한 보은 법주사 자정국존비(慈淨國尊碑)라고 알려져 왔다.<sup>1)</sup> 비문 중에 “1318년(충숙왕 5) 법가(法駕)를 갖추고 (자정국존을) 대민천사(大旻天寺) 강원(講院)에 초청하여, 삼가(三家)의 장소(章疏)를 강경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이 있다.<sup>2)</sup> 민천사는 충선왕이 1309년(충선왕 복위 1)에 모후(母后)의 추복을 위해 개성에 창건하였다. 자정국존<sup>3)</sup>이 민천사 강원에서 강경하였다는 기록인데 이를 최초의 ‘강원’ 명칭으로 이해하였다.

강원은 일찍이 불교의 전래와 함께 시작되었지만, 대개는 그저 ‘강(講)’이라고 하였고, ‘강당(講堂)’, ‘강석(講席)’ 등의 명칭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강원’의 정식명칭이 보이는 것은 1342년의 기록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강원’의 명칭은 이보다 훨씬 앞선 9세기말 불국사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즉 최치원(崔致遠, 857~?)이 찬한 「왕비 김씨가 그의 선고(先考)와 망형(亡兄)을 위하여 명복을 빌며 곡식을 시주하는 발원문(王妃金氏奉爲先考及亡兄追福施穀願文)」에 ‘강원’의 명칭이 보인다.

이제 선고(先考)이신 이찬(夷烝) 및 망형(亡兄)을 위하여 명복을 빌고자 벼 3천 짐(石)을 서울[경주]의 동쪽 산에 있는 광학침릉(光學寢陵)과 불국사의 표훈(表訓)·유가(瑜伽)·원측(圓測)의 삼성강원(三聖講院)에 함께 회사하옵니다. 감히 구명(求名)하는 보살을 끌어들이려 함도 아니요, 감히 무학(無學)의 비구를 멀리하려 함도 아

1) 효탄, 「한국불교 강맥전등의 고찰」, 『강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1997, p.53.

2) 이지관 편, 『교감역주 역대고승비문』 고려편(4), 「報恩法住寺慈淨國尊普明塔碑文」,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7, pp.324-329, “戊午 備法駕 邀入大旻天寺講院 講三家章疏”

3) 자정국존 : 慈淨彌授(1240~1327)는 유식에 능통하여 국녕사·웅신사·장의사·중흥사·유가사·동화사 등에 주석하며 법을 펼쳤다. 1324년(충숙왕 11)에 국존에 책봉되었고 법주사에서 입적하였다.

니오며, 오직 濟濟多士들이 이 애타게 근심하는 것을 함께 염려해 주기를 바라옵니다. 혹여 우산을 들고 포교하는 스님들이나 책 상자를 지고 배움을 찾아가는 학생들에게 (물질적으로) 넉넉하도록 하면 시주하는 단월의 가문에 조금이나마 나음이 있을 듯하여, 드디어 향기로운 곡식을 회사하여 학림(學林)에 이바지하나이다.<sup>4)</sup>

왕비 김씨가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의 명복을 빌고자 ‘광학침릉’과 ‘삼성강원’에 곡식을 시주하였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주목하는 구절이 ‘불국사의 표훈(表訓)·유가(瑜伽)·원측(圓測)의 삼성강원(三聖講院)’이다. 표훈은 김대성(金大城, 700~774)의 불국사 창건과 깊은 인연이 있었고, 유가는 당시 화엄종의 대덕이었다. 그리고 원측은 불국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이지만, 『80화엄경』 번역 과정에서 증의(證義)로 참가했었다. 즉 원측은 『80화엄경』 번역의 인연으로 불국사에서 숭배하였을 것이라고 한다.<sup>5)</sup> 이 세 분의 성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강원의 이름을 ‘삼성강원’이라고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발원문은 불국사의 역사와 사상 등을 헤아리는 중요한 자료로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주로 「화엄사사적기」와의 연관성, 유가(瑜伽)의 존재 등에 천착하였지만, 이 ‘삼성강원’의 용례는 큰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sup>6)</sup> 그러나 9세기 말 불국사의 ‘삼성강원’은 현재까지 기록으로 확인되는 최초의 ‘강원’ 사례이다. 표훈과 유가 등의 고승이 불국사에서 『화엄경』을 강경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절에는 9세기 말 이전에 이미 강원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기록에 등장하는 ‘광학침릉’에 주목하게 된다. 광학침릉은 ‘광학장(光學藏)’을 말한다. 불국사의 창건 초기 사정을 자세히 전하는 「불국사고금창기(佛國寺古今創記)」에 당시의 주요 전각과 석조물에 관한 기록이 있다. 여기에 ‘광학장’이 등장한다.

4) 최영성, 『역주 최치원 전집 2 고운문집』, 아세아문화사, 1999, pp.234-240, “今奉爲先考夷絜及亡兄追福 共捨稻穀三千苫於京城東山光學寢陵 佛國寺表訓瑜伽圓測三聖講院 非敢誘求名菩薩 非敢疎無學比丘 惟希濟濟之徒 共念熒熒之懇 或瞻於擔簞負笈 粗勝於施路檀門 遂使香稻 仰資學蔽.”

5) 김상현, 「석불사 및 불국사의 연구 - 그 창건과 사상적 배경」, 『불교연구』 2, 한국불교연구원, 1986, pp.11-13.

6) 김복순, 「최치원의 불교관계저술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43, 한국사연구회, 1983, pp.157-173; 김상현, 「불국사의 문헌자료 검토」,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pp.453-501.; 이문기, 「최치원 찬 9세기 후반 불국사 관련자료의 검토」, 『신라문화』 26,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5, pp.209-255.

광학장강실(光學藏講室) 21칸. 석가자수상(釋迦紫繡像) 1정(禎). 왼쪽 벽에는 헌강대왕의 화상(畫像)이 있는데 경문왕대의 선화니(善畵尼) 원해(圓海)의 필(筆)이다. 원해는 북사정공주(北寺定公主)의 딸이다. 그림 수로 세상의 제일이라고 알려졌다.<sup>7)</sup>

광학장강실은 21칸으로 안에는 자수로 조성한 석가여래상을 봉안하였다. 왼쪽 벽에는 원해라는 비구니가 그린 헌강왕의 초상을 봉안하였다고 한다. 최치원은 앞 서의 기록에서 헌강왕의 초상을 봉안하였기 때문에 ‘광학침릉’이라고 표기하였다.<sup>8)</sup> ‘광학장강실’은 이름에 그대로 나타나듯이 ‘빛나는 학문을 닦는 강의실’을 말한다. 이로써 불국사에는 창건 당시부터 강원이 설립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당시 절의 대웅전이 25칸, 극락전과 지장전이 각각 12칸이었음을 볼 때,<sup>9)</sup> 광학장강실 21칸은 꽤 큰 규모로 볼수 있다. 이후 1백여 년이 지난 9세기 말 불국사의 강원은 표훈과 유가, 원축의 세 성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삼성강원’이라 이름 붙였고, 이 기록이 ‘강원’ 표기의 최초 사례가 된다.

## 2. 근현대 불국사의 강학

불국사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공통적으로 통일신라의 창건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김대성의 창건담, 불국사와 석굴암과의 관계, 석가탑과 다보탑의 우수성,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등이 주요 주제였다. 이러한 편중 현상은 사실 고려 중기 이후 조선시대까지의 역사기록이 거의 전하지 않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 불국사의 근현대 사격을 조망한 연구가 있었지만<sup>10)</sup> 절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 시각의 다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절의 강학 전통이 근현대 시기에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불국사의 사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지하듯이 교학을 전수하는 강학의 체계는 우리 역사에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전통 시대에는 강학을 통할하는 종단이 없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사찰에 따라 또

7) 『佛國寺古今創記』, 문화공보부, 출간년도 미상, p.7.

8) 최영성, 앞의 책, p.239, 각주) 122.

9) 『佛國寺古今創記』, 앞의 책, pp.4-6.

10) 한상길,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pp.139-170.

강사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었다.

근현대 시기 불국사의 강학 활동도 이러한 한국불교의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체계적 혹은 표준화된 승가교육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1930년대부터 비로서 사격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제대로 된 강학 활동을 펼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절의 강학과 교육은 단절되지 않았다. 191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의 몇몇 사례를 통해 절의 강학 전통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1913년에 불교강숙(佛敎講塾)이 설립, 운영되고 있었던 사실이다.

#### 불국강설(佛國講設)

경주군 불국사 주지 송설우(宋雪牛)화상은 사무(寺務)에 심동(甚勤)은 무론(無論)우(又)에 불교강숙(佛敎講塾)을 당사내에 설립하고 열심교육은 모범가작(模範可作)이라더라.<sup>11)</sup>

1910년대 불국사는 몹시 퇴락해 있었다. 18세기 말에는 수 차례의 중수가 진행되어 웅장한 가람을 지닐 수 있었다.<sup>12)</sup> 1740년(영조 16)에는 대웅전을 중심으로 17개의 전각과 회랑, 극락전을 중심으로 11개의 전각, 비로전 일대에 3개, 관음전을 중심으로 7개의 문루(門樓)와 전각, 지장전을 중심으로 9개의 전각과 누각이 장엄을 이루고 있었다.<sup>13)</sup>

그러나 1805년(순조 5)의 비로전 중수를 끝으로 더 이상의 중건·중수 기록을 찾을 수 없다. 이후 1902년 일본인 건축학자 세키노 타다시가 절을 조사하고 간략한 보고서를 남겼는데 대부분의 전각과 석조물이 손상된 모습이다.<sup>14)</sup> 이후에도 절의 퇴락은 급속히 진행되어 1905년에는 자하문에 연결된 회랑이 붕괴되었고, 1910년 이전에 무설전도 무너졌다.<sup>15)</sup> 1914년에 촬영한 사진을 보면 청운교와

11) 『불교진흥회월보』 17, 1913.6, p.74.

12) 이강근, 「佛國寺의 목조건물과 修理·復原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7,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2005, pp.3-5.

13) 「佛國寺古今創記」,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pp.271-286.

14) 關野 貞, 『韓國建築調査報告』, 東京大學工大學術報告 6, 1902.

15)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앞의 책, pp.35-36.

백운교 앞으로 잡초가 무성하고 계단과 석축이 무너져 폐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이때는 사찰령에 의해 기림사가 본산으로 지정되고 불국사는 일반 말사로 규정되었던 시기이다. 이러한 지경에서 일본인이 다보탑의 석사자나 비로전 앞의 부도 등을 강탈하기도 하였다.



1914년 불국사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승가교육에 대한 열의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1913년 주지 송설우는 절에 불교강숙을 설립, 교육에 매진하였는데 당시의 모범이라 칭송할만하다는 것이다. 송설우는 불국사에 앞서 1910년 통도사 명신학교 학감을 지낸 일이 있어 승가교육에 노력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6)</sup>

이후의 강원에 관해서는 1960년의 사실이 전한다. 대강백 무비는 1960년 출가

16) “『양씨 열심』 경상남도 양산군 하북면 통도사 명신학교에서 거월에 제2학기 시험을 하였는데 그때 관광하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하여 성대한 정황이 있었고, 그 학교의 정도가 이렇듯이 확장함은 그 학감 장청호씨와 교감 송설우씨가 열심 권면한 효력이라고 칭송이 자자하다더라.” 『대한매일신보』 1910.1.5. 송설우는 1926년에는 통도사 주지에 취임하였다.



초기에 불국사 강원에서 수학하였던 당시를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 1960년도 출가하실 당시 불국사는 어떤 분위기였는지요?

- 당시 불국사에는 지효 스님이 주지였고, 제 은사가 되는 여환 스님이 총무 겸 재무 소임을 맡고 계셨지요. 원형 스님, 허현 스님, 일원 스님, 관행 스님, 무륜 스님 등이 계셨어요. 나는 불국사에서 처음에는 공양주, 갱두 소임을 했어요. 밥할 때는 당시에는 보리쌀을 섞어 먹었으니까 미리 보리쌀을 삶아 또 밥을 했지요. 장작을 때서 가마솥에 밥을 할 때였으니, 일이 여간 많지 않았죠. 그런데 나는 가자마자 사미계 수계식이 있어 『친수경』도 제대로 외우지 않고 사미계 수계를 받았어요. 열흘도 안 되어 사미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아마 당시에도 매우 드물었을 겁니다. 하여간 행자 생활도 거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미가 되어 바로 불국사 강원에 들어가 「초발심자경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불국사 스님들이 은혜사 주지이자 강사였던 진용 스님을 초청하여 행자와 사미들 대상으로 강의를 듣게 했는데 거기에 바로 들어갔어요.

▶ 당시에 출가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 행자 생활을 혹독하게 했다는데, 불국사는 바로 강원 공부를 가르쳤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 그게 아마 당시 범어사 스님들이 불국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범어사 스님들은 워낙 참선을 중시해서인지 행자에게 일보다는 경전을 가르치는 등 공부를 강조했어요. 불국사에서 그렇게 공부하다가 다시 범어사로 가서 강원의 사집 반에 편입하여 본격적인 공부를 했어요. 비구계와 보살계도 범어사에서 받았죠.<sup>17)</sup>

1959년 불교정화의 과정에서 비구측은 24개의 수사찰(首寺刹)을 확보하였다. 여기에 불국사가 포함되면서 절은 비로소 경북을 대표하는 수사찰로 공식 인정받기 시작하였다.<sup>18)</sup> 1960년 1월 수사(首寺) 불국사의 주지를 석주(昔珠, 1909~2004)가 맡았다가<sup>19)</sup> 곧바로 2월 25일에는 지효(智曉, 1909~1989)가 이어받았다.<sup>20)</sup> 바로 이 무렵 무비는 은사 여환(如幻, 1924~2001)이 불국사의 총무 겸 재무 소임을 맡게 되자 불국사에 머물게 되었다. 그런데 무비는 이제 갓 출가한 행자 신분이었는에도 강원예 들어가 「초발심자경문」을 공부하였다고 한다. 무비만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행자와 사미 모두가 강원예 입학하였다. 이때 강사

17) 여천 무비 엮음, 『拈花室 그림자』, 엄화실, 2008, pp.151-153.

18) 한상길, 앞의 글, pp.156-157.

19) 「광고」, 『대한불교』 1960.1.1.

20) 「首寺住持 發令名單」, 『대한불교』 1960.3.1.

는 은혜사 주지였던 진용이었다. 이와 같이 불국사는 경복을 대표하는 수사찰로 거듭나면서 승가교육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실천하여 행자와 사미들에게도 강원 교육을 시행하였다.

1961년에는 절에서 『벽암록』 강좌를 개설하였다. 1961년 초 능가(能嘉, 1923~2020)가 주지를 맡아 당시 박정희 사령관의 도움을 받아 가람을 정비하였다. 이 무렵 청운교·백운교 바로 앞까지 80여 채나 되는 상점과 민가들이 들어서 가람을 크게 훼손하고 있었다. 박정희 사령관의 재정 지원으로 상점을 모두 이주시키고 가람을 정비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21)</sup>

능가는 가람을 정비하는 한편 절을 강학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즉 ‘선학연수법회(禪學研修法會)’라는 이름의 『벽암록』 강좌를 열어 정화불사의 원만한 회향과 종풍(宗風)의 현양을 기원하였다.<sup>22)</sup>

[선어록 강의는] 범어사에서 하였지만, 내가 불국사 주지를 하였을 때도 그것을 하였어. 그거는 범어사 돈으로 내가 한 거야. 내가 그런 것을 구상하게 된 것은 정화가 어느 정도 안정은 되어가는 데에도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생긴다 말야. 이게 왜 그럴까? 이게 무슨 병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지. 정화의 일선에 관여를 하다 보니, 서울을 자주 올라가고, 내려오다 보니 자연 전국의 승려들의 수준을 알게 되고, 승려들의 사고방식도 이해하게 되었지. 그래서 나는 선풍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시작해야 하겠다고 생각하였지. 나부터도 중이 된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몰랐어. 그러니 나도 공부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을 내었지. 그리고 정화불사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뼈저리게 파악했어. 불국사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생각은 우리 스님[동산 스님]을 모실까, 설봉 스님을 모실까, 그때에는 성철 스님도 생각은 해보았지. 여러 생각은 하였지만 안 되겠다 싶어 설봉 스님을 모시고 시작하였지. 그래서 그 강의한 것을 정리, 보완하여 책으로도 냈지. 그때 전국의 승려들이 불국사에 안 온 사람이 없어.<sup>23)</sup>

21) 능가스님,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화운동』; 김광식,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pp.71-73.

22) “『禪學研修法會 開催』 今般 慶州 佛國寺에서는 禪學研修法會를 開催한다. 그의 緣由인 즉 宗團淨化佛事-終局의 段階에 이른 此際에 佛國寺에서는 淨化佛事の 圓滿한 回向과 아울러 宗風の 格段의 顯揚을 冀願하여 左記와 같이 禪學研修法會를 奉修한다. 記一, 研修科目 碧巖錄一, 指導講師 性吳大禪師一, 場所 佛國寺禪院一, 期日 開講 10월 15일(음) 回向 明年 1월 15일 3個月間”.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앞의 책, p.54에서 재인용.

23) 『내 영혼을 뜨겁게 달구었던 정화운동』, 앞의 책, pp.70-71.

정화운동의 와중에서 당시 승려들의 수준을 절감한 능가는 교육과 수행이 교계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였다. 1950년대 대부분의 명찰과 고찰은 대처승이 점유하고 있었다. 6백 명 남짓의 독신승은 교육과 수행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sup>24)</sup> 1953년 4월 불국사에서 개최된 조계종 법규위원회에서 18개 사찰을 수좌 측에 할당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석주는 “만암 스님이 불국사에서 회의를 했는데 나도 갔었지. 그때 독신승에게 수행사찰 몇 개만이라도 달라고 했지. 그것이 잘되었으면 일이 커지지 않았어.”<sup>25)</sup> 라고 술회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도 이러한 정화운동은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였다. 능가는 이러한 현실이 승려들의 부족한 자질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절에 『벽암록』 강의를 개설한 것이다. 강의를 개설하자, 전국에서 많은 학인들이 불국사에 모여들었다고 한다.

당시 이 강의에 참여했던 각원 선과(覺園善果)의 자세한 증언이 있다.

『벽암록』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나라 해방 이후 최초로 『벽암록』 강의를 하고 책을 낸 이야기를 해야겠다. 당시 불국사 주지였던 능가 스님과 선방 수좌로 있다가 범어사 교무를 맡았던 진상 스님과 광덕 스님, 이 세 분은 삼총사로 불릴 만큼 서로 절친한 도반이었다. … (중략) … 그래서 1961년 동안거 때, 불국사에서 『벽암록』 강설을 준비하였고,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범어사) 조실스님의 염려를 감안하여 모든 동참 대중들은 불국사 선방에서 철저하게 정진하도록 규칙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 방을 찼다. 즉 참선 정진의 토대 위에서 하루 두 차례씩 『벽암록』 강설을 열었던 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조실스님께서 이르신 경책의 힘이었다. 조실스님의 말씀을 조금도 어기지 않았던 삼총사 스님들이 의논하고 협력하여 한국 초유의 『벽암록』 강의를 그렇게 막이 올랐다.

장소가 불국사였던 것은 능가 스님이 주지인 때문이고, 진상 스님은 대중을 모았고 광덕 스님은 강사인 설봉 큰스님을 모시는 일과 교재를 책으로 엮는 일 등, 기타 여러 일을 맡았다. … (중략) … 나는 그때, 범어사 강원 강사인인 고봉 스님께 능엄경을 듣다가 홍원, 선래, 정달 등 도반들과 함께 『벽암록』 살림에 동참하기 위해 불국사로 향했다. 내 나이 불과 스물 셋 무렵이었다. 『벽암록』 강의는 하루에 두 차례씩 꼬박 3개월이 걸렸으니, 1961년 동안거는 그렇게 뜨겁고 숨 가쁘게 지나갔

24) 1941년 선학원의 전국선원방합록에 하안거 540명, 동안거 482명이 전한다.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2001, p.192.

25) 『석주스님 선학원과 함께 한 40년』,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선우도량출판부, 2002, p.50.

다. 당시 동참 대중들은 모두 불국사 선방에 방부를 들어서 소임을 정하여 대중 생활을 여법하게 했고, 참선정진에 소홀함이 없이 하루 두 차례, 오전·오후에 열리는 강의에 참석하는 빈틈없는 일과가 결연히 진행되었다.

내가 알기로는 『벽암록』이 근래 우리나라에서는 책 발간도 그때가 처음이었고 강의도 처음이었으며 현토도 처음이었을 것이라고 본다. 종문 제1서(宗門第一書)라고 칭송하는 『벽암록』 살림이 불국사에서 한겨울 내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나는 그때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탄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어찌면 제불회상에 있는 듯 넘쳐 오르는 법열로 잠을 덜 자도 피곤하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않았다. 어떻게 하든 도인이 되겠다는 웅골찬 결의로 순식간에 석 달을 보냈다.<sup>26)</sup>



1961년 동안거, 『벽암록』 강의를 마치고

1961년 동안거 3개월 동안 불국사에는 이처럼 결사(結社)를 떠올리게 하는 교학 연찬이 진행되었다. 하루 두 번의 강의는 한겨울 내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모두가 제불회상에 모인 듯 법열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 정화운동의 혼란이 거듭되는 와중에서도 이처럼 불국사에는 진리에 대한 열망과 배움

26) 각원선과, 「범어사에서 광덕 사형님과 보낸 시절」, 『광덕스님시봉일기』 4, 도피안사, 2004, pp.159-164.

의 의지가 가득하였다.

1966년에는 불국사에 전문강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해 8월 30일에 사집과와 사미과의 수료식이 거행되었다.

#### 불국사 강원 수료식

지난 (1966년) 8월 30일 불국사 전문강원에서는 사집과 및 사미과의 수료식이 채벽암원장 주재하에 거행했다. 채벽암 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자 도제양성에 착안하여 김철수(金哲守) 스님을 강사로 초빙하여 오늘에 와서 사집과 4명[아래 명단에는 3명이다. 필자 주], 사미과 3명을 배출하였다.(중략) 이번 수료자의 명단은 사집과 김법진(金法田), 김보산(金普山), 강성현(姜聖賢), 사미과 권일원(權一願), 이적광(李寂光), 최자행(崔慈行)이다.<sup>27)</sup>

1962년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면서 종단은 중무 전반에 관한 체계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승가교육에 관한 교육법을 제정하여 승가교육의 단조를 마련하였다. 당시 교육법에는 초등학림, 전문학림, 총림, 종비생 등의 일련의 과정을 성안하였다.<sup>28)</sup> 1964년부터 시작한 종비생제도에 의해 일부 승려가 동국대에 입학하였지만, 이 시기 동국대 입학 승려들은 이미 강원교육을 마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동국대는 이른바 ‘재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강원은 이처럼 조계종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실제 1960~70년대의 강원교육은 위상에 부응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이 시기 강원은 강원마다 학제가 달랐으며, 사찰 운영자들의 판단에 따라 수시로 설립, 폐지를 거듭하는 경우도 많았다. 당시 종단은 일정한 강원교육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이 시기 강원교육에서 대교과를 수료하는 학인들은 매우 드물었다고 한다.<sup>29)</sup> 또한 당시 불교계의 일반적인 분위기가 강원보다 선원을 선호하는 경향이어서 강원교육에 대한 체계적 발전을 모색하기가 힘들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1969년에는 총 12개의 강원에 5백여 명의 학인들이 수학하고 있었다. 당시에 강원을 운영하던 사찰은 해인총림·동화사·운문사·법주

27) 『대한불교』 1966.9.11.

28) 『불교신문으로 본 조계종단 50년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2012, pp.267-268.

29) 문순희(퇴휴),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p.112.

사·범어사·선운사·금산사·화엄사·통도사·동학사·백양사·화운사 등이었다. 이후 10년 지난 1979년에는 강원(승가학원)이 18개로 늘어나게 되는데, 봉녕사·화운사·봉선사·신흥사·월정사·범주사·동학사·직지사·동화사·운문사·해인사·대원사·범어사·통도사·표충사·석남사·금산사·선운사 등이다.<sup>30)</sup>

불국사는 조선시대의 강학 전통을 꾸준히 계승하여 1913년에는 불교강숙을 개설하였고, 1959년 수사찰로 지정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강원을 운영하였다. 1960년의 강원에는 행자와 사미에게도 강원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듬해인 1961년에는 가람 주변의 유락시설을 일체 정비하고 『백암록』 강좌를 개설하였다. 동안거 3개월 동안 진행된 『능엄경』 강설은 전국의 많은 학인들이 동참하여 마치 결사와도 같은 열띤 분위기였다. 1966년에는 전문강원에서 7인을 배출하였다. 엄정한 심사를 거쳐 입학한 학인들은 장학 혜택을 받으며 내외전을 두루 섭렵할 수 있었다.

### III. 불국사 승가대학

#### 1. 승가대학 개원

불국사 승가대학<sup>31)</sup>은 1975년 8월 31일에 개원하였다. 불국사는 1969년부터 1973년까지 대대적인 발굴과 중창이 진행되었다.<sup>32)</sup> 이후 1974년 6월에 월산선사(月山禪師, 1913~1997)가 주지로 부임하여 수행과 전법도량으로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sup>33)</sup> 그 첫 번째 과업이 승가학원과 선원의 설립이었다.

30)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pp.236-237. 이 책의 집계에는 모두 불국사 강원이 누락 되었다. 불국사를 포함하면 1969년에는 13개, 1979년에는 19개의 강원이 운영되고 있었다.

31) 승가대학 : 불국사 승가대학이 공식 명칭이다. 종단의 법령에 따라 강원 → 지방 승가대학 → 사찰승가대학 등으로 명칭이 변하였다. 그런데 자료와 증언 등에는 ‘승가학원’, ‘강원’, ‘전문강원’, ‘학림’ 등 다양한 이름으로 등장한다. 원자료의 취지에 따라 그대로 표기하지만 모두 승가대학을 가리킨다.

32)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33)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 2019, pp.75-76.

##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는 지난달[1975년 8월] 31일 주지 스님을 비롯 대중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국사승가학원 개원식을 가졌다. 강사는 法空 스님. 이날 식은 총무국장 月性 스님의 개식사와 교무국장 性陀 스님의 강사 약력 소개의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 범공 스님은 인사에서 “항시 도제양성에 염원이 되어오던바 본사 주지 스님의 원력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으나 중책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신도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주지 스님은 격려사에서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한 “말사에 1인 이상 학인을 의무적으로 강원에 보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국사는 그간 강원이 신설되어 있었으나 실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었다. 불국사 말사는 50여 개로 알려지고 있어 강원생을 적어도 60~70명 이상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선사는 “종단 백년대계를 위해 도제양성이 시급하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원했다.”고 하였다. 선사는 1969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바 있으므로 종단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도제양성이 시급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금년에는 선원을 신축하고 내년에는 강원을 증축하여 명실공히 모범적인 선·강원을 이룩하여 도제양성과 수도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하였다. 당시 승가대학의 강사는 범공(法空)이었고, 총무국장 월성(月性)과 교무국장 성타(性陀)가 이 수행불사에 동참하였다.

월산선사는 일찍이 은사 금오선사의 가르침을 받으며 수행에 매진하였고 1948년에는 봉암사결사에서 치열한 구도에 진력하였다. 1969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하여 정화불사와 종단 유신안 등의 어지러운 현실을 점차 안정시켰다.<sup>35)</sup> 이와 같이 이(理)와 사(事)에 두루 행통하여 불국사의 중흥을 일궈냈던 것이다. 이때 입학한 학인들은 이듬해인 1976년 4월에 졸업하였다. 자세한 내용이 『대한불교』에 전한다.

##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월산 스님)에서는 지난 4월 15일(음 3월 16일) 제1회

34) 『대한불교』 1975.9.7.

35) 「5대 총무원장 월산스님」, 『법보신문』 2018.6.13.

승가학원 수료식을 동학원 강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서 학원장 월산 스님은 수료생들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경학에서 배운 바를 참선을 통해 직접 체득해서 계속 정진할 것을 당부했으며 강주 法空 스님은 종단의 내일을 맡아갈 훌륭한 동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훈시했고, 그 외에도 교구말사 주지 대표 月南, 德庵스님과 신도회장 趙仁佐거사의 축사 등이 있었다. 불국사 승가학원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개원한 이래 그 첫 수료생을 배출하였는데 당사에서는 현재 신축 중인 선원 공사가 완공되는대로 학원의 강의실도 새로 신축하여 강사진 구성 및 제반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구(한)말 강원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학교식 운영방식으로 바꾸고 徒弟教育의 새로운 기원을 세우고자 계획하고 있는바 차체에 많은 참신한 학인들의 입원을 바라고 있다. 이번의 수료생 명단은 다음과 같다. 대교과 졸업 宗厚, 사미과 수료 英丘, 觀性, 衆德, 一止, 大耕, 三玄, 虛求, 性坦, 宗水<sup>36)</sup>

이날 승가학원 졸업생은 대교과 1인, 사미과 9인 등 모두 10인이었다.



제1회 강원생 졸업기념(1976. 4. 15.)

한편 불국사에서는 강의실을 새로 신축하고 강사진을 구비하여 “구한말 강원의 운영방식과는 다른 학교식 운영방식으로 바꾸고 도제교육의 새로운 기원을

36)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대한불교』 1976.4.25.



서울 계획”이라고 하였다. 즉 전통강원을 지양하고 현대식 학교 교육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계획을 그대로 실천하여 1978년 9월 새로운 강원을 준공하였다.

불국강원 완공 9월 10일 회향식

불국사 5천만 원 들여 72평, 9월 10일 회향식, 9월 5일까지 학인 모집  
 불국사(주지 최월산 스님)에서는 지난 4월 착공했던 불국사강원을 5개월간의 공사에 걸쳐 완공, 9월 10일 오전 10시에 준공식 겸 개강식을 갖는다. 총공사비 5천만 원이 소요된 새 강원은 건평 71평에 보일러까지 설비, 수용인원 30명의 대강원으로서 새출발 하게 됐다. 불국사는 지난 76년도에 이미 선원을 신축 급년 강원이 준공됨으로써 명실공히 선과 교를 집대성하여 꽃피울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셈이다. 비록 관광붐으로 인해 사찰이 관광 명소화 되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세파에 휩쓸리지 않고 학업과 정진에 몰두하는 불가의 기풍을 진작시키겠다고 주지 월산 스님은 소견을 피력, 내일의 불교를 위한 조용한 정화를 약속했다. 또한 동 강원은 裴雲起대강백을 강사로 9월 10일의 개강을 위해 학인 모집을 공고, 희망자는 9월 5일까지 직접 불국사에 출두, 원서 제출을 바라고 있다.<sup>37)</sup>

강원 중수는 1978년 4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진행되었다. 5천만 원이라는 당시로서는 거액을 투입하여 건평 71평에 난방시설을 갖추고 30명까지 수용 가능한 대강원으로 거듭났다. 강원의 외적 토대를 갖추고 이때부터 대홍사의 강주를 지냈던 배운기(裴雲起)대강백을 강주로 초빙하여 내실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였다.<sup>38)</sup>

1981년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 강원교직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승가학원(강원) 설치령’을 발표하였다. 치문·사집·사교·대교과 등 전통강원의 교과과정에 불교사 및 선종사상사를 추가하고, 외국어와 인문학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공식적으로 승가교육에서 전통과 현대의 접목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부족한 강사와 미흡한 교재로 가시적인 결실은 그리 많지 않았다.<sup>39)</sup>

37) 「불국강원 완공 9월 10일 회향식」, 『대한불교』 1978.9.3.

38) “제11교구 본사 불국사(주지, 월산 스님)에서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불국강원 신축공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각 강원 강주 스님 및 종단의 중진 스님, 지방 기관장 등 사부대중 4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특히 함께 열린 개강식에는 대홍사 강원의 전강주였던 석학 雲起스님이 새 강주로 취임, 강원 출범에 의의를 더했다.” 「불국강원 준공식」, 『대한불교』 1978.9.24.

이후 언론에서 80년대의 학인 모집, 졸업 등에 관한 기사광고 등을 통해 강원 활동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78년 10월 「강원생 모집」, 능엄반 보결생 모집<sup>40)</sup>
- 1980년 3월 「불국사 승가학원 편입생 모집」<sup>41)</sup>
- 1981년 2월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제4회 졸업식으로 졸업생은 공연, 현섭, 법진, 법초, 수원, 혜봉, 득도, 처광 등 8인<sup>42)</sup>
- 1982년 2월 「불국사 승가학원 신입생 모집」, 시험과목은 초발심자경문, 의식, 국어, 외국어(한문·영어·일어 중 택일) 등이었다. 이 해부터 월서가 강원 원장 취임<sup>43)</sup>
- 1982년 11월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제7회 졸업식으로 졸업자는 무연, 정도, 법상, 종광, 황면 등 6인<sup>44)</sup>
- 1983년 3월 「불국사 승가학원 학인모집」 사미과 신입학인 모집<sup>45)</sup>
- 1984년 2월 「대교과 7명 졸업」, 졸업자는 백성, 해산, 지열, 지옥, 지현, 법상, 정심 등 7인<sup>46)</sup>

이와 같이 불국사 승가대학은 정식 개원한 1975년 이후 변함없이 학인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며 많은 승가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강원 행정이나 중무행정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던 시절이라 아쉽게도 정확한 입학생·졸업생 수, 강사, 수업 과목 등의 자세한 현황은 전하지 않는다.

한편 1984년 9월 승가대학 설립자인 월산조실과의 인터뷰에서 당시의 수행과 교학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다.

39) 「통합종단 50주년 성과와 과제 ③ 도제 양성(승가교육)」, 『불교신문』 2012.4.5.

40) 「광고」, 『대한불교』 1978.10.

41) 「광고」, 『대한불교』 1980.3.30.

42)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대한불교』 1981.3.15.

43) 「광고」, 『불교신문』 1982.2.21.

44)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불교신문』 1982.12.12.

45) 「광고」, 『불교신문』 1983.3.13.

46) 「대교과 7명 졸업, 불국사 승가학원」. 『불교신문』 1984.2.29.

불국사라면 단순한 관광의 명소쯤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국사는 강원과 선원을 갖춘 수도원이 있고 그 속에서 천 년 전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다시 일으킬 응지에 불타는 수행승들이 모여 살고 있다. 이러한 수도원이 있게 한 장본인은 한국불교의 원로 월산큰스님! 그분이 이 땅에 새로운 가람을 이루어 수행승을 불러 모아 오로지 관공지 불국사에서 수행처 불국사가 되게 하신 분이시다. 75년에 개원한 선원은 별천지, 명산 토함산 아래 포근한 알자리 제2의 불국사인 이곳이 시끄러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준다. 불국선원이라 쓴 대문에는 오도자 불입(悟道者不入)이라고 쓴 편액이 우선 눈에 띄고 “이 문에 들려거든 분별망상을 버려라(入次門內 莫存知解)”는 글이 보인다. 해제철이라 선실은 조용하다. 고졸(高卒)한 경봉 스님의 주련이 붙은 채가 엄화실 즉 조실스님이 거처 하시는 방이다.

▶ 요즘 수좌들, 스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옛 스님께서 공부하시던 것과 비교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내가 시원찮으니 우리 선원에는 공부 열심히 하는 수좌들은 안 오는 모양이야.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요즘 걸망 메고 선방이라고 오는 것만 해도 여간 고맙지 않아요. 요즘 얼마나 세상에 팔리기 쉬워 명예와 쾌락과 돈 ... 등 물질문명이 극도에 달하여 자칫 노예가 되기 쉬운 말세에 걸망이라도 지고 다니는 것만 해도 대견스럽고 고맙지. 옛날에도 대근기(大根器)는 찾기 어려웠고 지금은 더욱 말할 것이 없지요.

▶ 스님께서는 어떻게 공부 하셨는지요?

- 우리가 젊을 때에는 다들 화두를 들고 공부를 했지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 부산 선암사에서 오래 지냈지요. 육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 내원사에도 있었고.

▶ 그때는 아침저녁으로 선지식이나 조실스님께서 계속 화두 점검을 하셨습니까?

- 그래 요즘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 수좌들도 게으르고 나도 마찬가지로 ... 내 생각은 금강경 정도는 수좌들이 아침저녁으로 송경했으면 좋겠어. 신심도 나고, 그러나 통 할려고 해야지.

▶ 언제부터 우리나라 선원에서 불립문자 하는 풍조가 있었는가요?

- 진정한 수행승은 일체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지, 득도할려면 화두 타파하는 것만이 그 전부여야 해. 물론 어록이나 부처님 말씀은 필요하지만 선원에서는 화두 타파하는 것에 전심전력을 투구해야 해요. 그밖에 일체 것은 다 없애고 ... 선원에서는 오직 일념으로 화두 타파를 해야 합니다. 애써서 화두타파 할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부처님 말씀도 참고로 하고 조사어록도 좀 보고 깨달음과 연관 없는것은 다 없애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 가야 한다고 보지요.

▶ 그러면 포교 문제나 교학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와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보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견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좌들과 교학과 포교하는 학자나 포교사는 그 방법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또 중단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국불교는 선종이 대표적인 것이긴 해도 선종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니까 염불종이나 그 밖의 의식의 문제도 더욱 찬란하게 하고 포교에도 더욱 힘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 견성과 포교 문제 양분(兩分)적인 것에서 꼭 젊은 수행자들이 고민하고 갈등을 가지는데 스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내가 불 때는 견성이 급하고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은 곧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남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과 같지요. 내 발등의 불을 끈 연후에 남의 발등에 불이 보이는 것과 같이 내가 견성하고 난 연후에 포교도 있다고 보지요.

… (중략) …

▶ 생활불교라는 말이 있는데 진정한 생활불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불교라는 말에 우선 생각나는 것은 원효 스님이 신라 땅을 다니면서 바가지를 두드리며 노래도 하고 교화도 했는데 우선 불교가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연극이나 영화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미술이나 공예 … 그밖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생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염불을 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북과 징을 치면서 더욱 신명이 나고 찬란하게 해서 그들과 우선 가까워져야 된다고 보지요. 그리고 동사섭(同事攝) 즉 동고동락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렐려면 그들의 기쁨과 아픔의 현장에 같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 교화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조상들은 산 이름을 전부 불교경전에 의하여 불인 것을 보면 꼭 현명한 생활불교 실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으로는 화두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불교 전체를 봐서는 여러 가지 모든 종파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불교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불교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장은 수도장답게 포교당은 포교당답게 각기 특징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sup>47)</sup>

월산은 ‘선사’였다. 1945년 수덕사에서 만공으로부터 ‘이뵈고’ 화두를 받아 정진을 시작한 이래 금으로부터 ‘돌맹이 화두’ 이뵈고를 재점검 받으면서 용맹정진의 결심을 굳혔다. 1948년 경 봉암사결사에 참석할 때는 ‘부처님 법대로 살자’라고 하면서 공주규약(共住規約)대로 수행하였다. 1953년 청도 적진사 도솔암 토굴에서는 가난과 허기에 고통받으면서도 철저히 홀로 수행정진하였다. 여기서 큰 힘을 얻고 오로지 ‘이뵈고’ 화두에만 몰두하였다. 이러한 참선수행 정신을 바탕으로 1974년 불국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석굴암에서 토굴수행과 불국선원을 개창하여 후학을 지도하였다.<sup>48)</sup>

47) 「불국(佛國)선원을 찾아서, 월산 큰스님」, 『월간 해인』 31호, 해인사, 1984. 9.

자신은 평생 철저한 참선 수행자였으면서도 앞의 인터뷰에서 월산은 “내 개인으로는 화두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불교 전체를 파서는 여러가지 모든 종파가 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개인은 불교 전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의견이 전체 불교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장은 수도장답게 포교당은 포교당답게 각기 특징을 가지면서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어야만 진정한 불교의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종파의 다양성과 포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학과 의식에 대해서도 열린 의식을 지녔다. “견성을 중심으로 하는 수좌들과 교학과 포교하는 학자나 포교사는 그 방법이나 소질을 개발하고 또 종단적인 지원도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한국 불교는 선종이 대표적인 것이긴 해도 선종만이 유일한 것이 아니니까 염불종이나 그 밖의 의식의 문제도 더욱 찬란하게 하고 포교에도 더욱 힘써야 되리라고 봅니다.”

## 2. 1990년 이후의 승가대학

1990년에는 상묵(象默)이 승가대학의 강주를 맡았고, 이듬해인 1991년에는 종원(宗圓)이 주지로 취임하면서 학장을 겸임하였다. 당시 승가대학은 3년 과정이었고, 20여 명의 학인이 재학하고 있었다.<sup>49)</sup>

1994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이 출범하면서 종단의 교육행정이 일원화하기 시작하였다. 승가교육체계를 행자교육, 기본교육, 전문교육, 특수교육, 연수교육의 다섯으로 구분하고 모든 출가자들은 법계를 받기 위해서는 매년 승가고시를 치르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승가대학은 기본교육에 포함시켰다. 승가대학을 “행자교육을 이수한 사미·사미니에 대해 비구·비구니로서의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게 하기위하여 기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상설기관”으로 규정하였다. 이어 교육법 66조에서는 기본교육의 이념 및

48)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 수행과정과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32, 2019, pp.91-131.

49) “63개의 말사를 두고 있는 80여 명의 대중 스님들이 주석하고 있는 불국사가 교구본사로서의 위용과 활약을 크게 펼쳐 보이게 된 것은 1974년 현 조실 월산 스님의 원력이 일궈낸 작품이다. 1백 평의 선원을 중수해 선망납자의 정진을 돕고 있고 3년 과정의 승가대를 개설, 현재 20여 명의 학인승려가 ‘이론실수’에 열중하고 있다.” 「미래사회 밝힐 한국불교의 법등」, 『불교신문』 1991.5.8.

목표는 스님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고, 인천의 사표로서 지혜와 원력을 함양하게 하기 위해 조계종지의 체득을 비롯한 8가지의 구체적인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불교의 기본원리를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둘째, 불교교단의 전통정신을 체득하고 계승하도록 배려되어야 하며 셋째, 교화에 임해서 원만히 교화불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수련하는 훈업(薰業)이 있어야 하고 넷째, 내부적으로 교단을 수호하고 관리하는 힘을 길러주는 교과목을 개설한다는 것이다.<sup>50)</sup>

이러한 교육법에 따라 전국의 강원들이 승가대학으로 인가되고, 학제와 교과 과정이 동일화되었다.<sup>51)</sup> 불국사 승가대학은 1995년 이에 맞춰 ‘불국사 승가대학’으로 정식 개원하게 된다. 1997년 조계종교육원에서 강원의 역사와 현황을 망라한 『강원총람』을 간행하였다. 이 가운데 당시의 불국사 승가대학의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강원총람』(1997년)의 불국사 승가대학 주요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훈 : 인불학 불지도(人不學 不知道)</li> <li>■ 불국사 승가대학은 사미승가대학으로서 1975년 이전에 설치되었으나 실제적으로 1975년부터 법공 스님이 강의를 맡으면서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범룡(梵龍), 운기(雲起), 재선(在禪), 상묵(象默), 용문(龍門) 스님으로 강의가 이어져 왔으며 현재는 지욱(智旭) 스님이 강의를 맡고 있다.</li> <li>■ 강원(승가대학) 역대 강주·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공(法空, 1975~1978)</li> <li>• 범룡(梵龍, 1978~1979)</li> <li>• 운기(雲起, 1979~1982)</li> <li>• 재선(在禪, 1982~1984)</li> <li>• 상묵(象默, 1984~1994)</li> <li>• 용문(龍門, 1994~1996)</li> <li>• 지욱(智旭, 1996~)</li> </ul> </li> <li>■ 학제 및 교과과정</li> </ul>	
사미과	치문, 외국어, 서예, 컴퓨터, 특강,
사집과	서장, 도서, 선요, 절요, 외국어, 서예, 컴퓨터, 특강

50) 능허, 「강원의 교육이념 및 목표에 대한 고찰과 진단」, 『승가교육』 4,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pp.133-134.

51) 양관 스님, 「통도사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 『대각사상』 15, pp.227-228.

사교과	능엄경, 기신론, 금강경, 원각경, 외국어, 서예, 컴퓨터, 특강
대교과	화엄경, 서예, 컴퓨터, 특강
특강	1. 학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외래교수를 초빙, 특강할 수 있다. 2. 특강 내용은 행정, 문화, 교육, 복지, 포교 등으로 한다.

■ 강원(승가대학) 학인 현황  
치문반 13인, 사집반 3인, 사교반 2인, 대교반 0인,

■ 강원 졸업자 명단<sup>52)</sup>

졸업회차 / 시기	졸업자수(인)
제1회 ~ 제9회	누락
제10회 / 1988. 3.	3
제11회 / 1989. 2.	15
제12회 / 1990. 2.	8
제13회 / 1991. 3.	7
제14회 / 1991. 11.	5
제15회 / 1993. 2.	4
제16회 / 1994. 3.	8
제17회 / 누락	누락
제18회 / 1996. 2.	6
제19회 / 1997. 2.	6

52) 「강원졸업자 명단」, 『강원총람』 별책 부록.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1997, pp.17-18.



제19회 졸업식(1997. 2.)

이와 같은 1997년 당시의 승가대학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 강주는 지욱(智旭), 중강은 종천(宗泉)으로 학인은 모두 21인이었다. 졸업생 수는 1회부터 9회까지 즉 1976년 이후 1987년까지는 자료의 누락으로 확인되지 않고, 이를 제외하면 모두 62인이었다.

그런데 『대한불교』 등의 기사에서 제1회(1976년) 대교과 수료 1인, 사미과 수료 9인이 확인된다.<sup>53)</sup> 또한 제4회(1981년) 졸업생은 8인이었고,<sup>54)</sup> 제7회(1982년) 졸업생은 6인<sup>55)</sup>, 제9회(1984년) 졸업생은 7인이었다.<sup>56)</sup> 즉 『강원총람』에서 누락

53) 「불국사 승가학원 첫 수료식」, 『대한불교』 1976.4.25.

54)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대한불교』 1981.3.15.

55) 「불국사 승가학원 졸업식」, 『불교신문』 1982.12.12.

56) 「대교과 7명 졸업, 불국사 승가학원」, 『불교신문』 1984.2.29.



한 1회~9회 졸업생 가운데, 1회, 4회, 7회, 9회의 졸업생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82인이 된다. 1999년에는 17인의 학인이 재학 중이었고,<sup>57)</sup> 2003년에는 16인이 재학하였다.<sup>58)</sup> 당시 학장은 응각, 교수는 종천·정묵·정수 등이었다.

2010년에 들어 중단은 승가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교육원은 2009년 승가교육 진흥위원회를 출범하여 승가교육의 현대화와 내실화라는 큰 틀에서 교육불사를 추진하였다. 이 가운데 교육 불사의 핵심은 단연 교과과정 개편이다. 기왕의 한문 위주의 교재를 현대화·한글화하고, 교과목도 대폭 늘렸다. 학인들은 4년, 8학기 동안 48개의 과목을 배우게 된다. 한문 불전을 강독하는 것 외에도 초기, 대승, 선, 불교사, 계율, 비교종교학, 불교문화, 사회복지학, 참선 지도방법론 등을 익히도록 하였다. 교육 개편안은 그간 진행돼온 승가교육과는 차이가 크다. 기존 승가대학은 4년간 치문, 사집, 사교, 대교를 배우고 여기에 대승경전 몇 권을 공부하는 형태였다. 한문 경전을 중심으로 한 훈고학적 수업 위주였기 때문에 원문해석에 많은 시간을 쏟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번 교과개편은 개별 승가대학 입장에서는 개혁과 같다고 한다.<sup>59)</sup> 이러한 교육법 개정에 따라 2011년 신학기부터 채택하는 신 교과과정 시행 승가대학에 선정되었다. 불국사를 비롯하여 동화사, 운문사, 수덕사, 해인사, 쌍계사, 범어사, 송광사, 봉녕사 등 9개소였다.<sup>60)</sup>

이러한 개혁안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이해하기 위해 『불교신문』은 그 사례로 2010년 12월 불국사 승가대학을 집중 취재하였다.

변화하는 한국불교 - 승가교육 현장  
 승가교육개혁은 불교미래 밝히는 원동력  
 ‘미래 人天의 스승 육성’ 교육시스템 구축하는 불국사승가대학

조계종 승가대학이 달라지고 있다. 교과 개편과 전문승가대학원 설립을 필두로

57) 「승가대학(강원) 종합평가 사업 보고서」, 『승가교육』 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0, pp.64-91.

58) 「2002·3승가교육의 현황」, 『승가교육』 5, 2004, pp.41-57.

59) 「변화하는 한국불교 - 승가교육 현장」, 『불교신문』 2011.1.1.

60) 「조계종, 불국사 등 새 교과과정 시행 승가대 9곳 선정」, 『불교신문』 2010.11.30.

한 승가교육 진흥불사가 시작되면서 조선시대부터 300년간 이어온 강원의 교육법에 현대화 바람이 불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지난해 수십여 차례의 간담회와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구했고, 13개의 법령을 새롭게 제정해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변화의 중심은 교육원이지만, 변화의 결말은 각 승가대학이 맺는다. 3월 개강을 앞두고 전국의 승가대학은 지금 새롭게 개편한 교과과정에 맞춘 학제 마련에 여념이 없다.

지난해 12월 24일 제11교구본사 불국사승가대학(학장 덕민스님)을 찾았다.

… (중략) … 불국사 승가대학은 그간 운영위원장 성타 스님을 비롯해 학장, 강사 스님들은 새로운 학사 운영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현대화된 커리큘럼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논의였다. 스님들은 새롭게 개편된 교과목을 지도할 강사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경주라는 지리적 장점을 십분 활용해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진각종에서 운영하는 경주 위덕대와 네트워크 조직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해 강사진 확보에 우위를 선점한 것이 시작이다. 강사 정수 스님은 “개편된 교과과정을 따르려면 우수한 전문 강사진이 많이 필요한데 경주 동국대가 인접해있어 다른 어떤 승가대학보다 협조가 용이하다.”며 “종립학교의 교수진과 박사들이 승가대학에서 강의한다면 강의질도 담보되고 학사 운영도 원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중략) … “한국불교의 미래는 승가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는 성타 스님은 “출가자는 누구보다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소양을 갖춰 국가와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천의 스승이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수행에서도 이사겸수(理事兼修) 하듯 승가교육도 이와 사가 겸비돼야 조화롭고 이상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며 “이번 교육혁신을 계기로 불국사승가대학은 사회에서 존경받는 출가자들을 기르는 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sup>61)</sup>

이와 같이 불국사는 교육개혁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장 성타, 학장 덕민, 그리고 강사 정수 등이 전통교육과 현대교육을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성타는 “1970년대 초반까지 관광사찰에 불과했던 불국사가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게 된 계기는 승가대학 설립”이라며 “월산 스님의 원력으로 강원이 세워진 이래 불국사 승가대학은 40년의 역사를 지닌 명문 강당이 됐고, 한문학의 대가 덕민 스님이 학장 소임을 맡고 있어 학인들이 불전을 탐마하기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강조하였다.

불국사 승가대학은 역사가 오래 되지 않았으나 이처럼 종단의 승가대학 중에

61) 「변화하는 한국불교 - 승가교육 현장」, 『불교신문』 2011.1.1.

우수한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2012년에도 『월간 판전』에서 승가대학을 탐방하여 자세한 기사를 신었다.

### 강원을 찾아서 3, 토함산 불국사

강주인 학장 스님은 일해 덕민 스님, 학감은 현학 스님이다. 불국사는 조계종의 강원중에서도 시설과 지원이 으뜸으로 꼽힌다. 사중 요사채의 절반 이상이 강원 용도로 쓰이고 있어 강의실이 부족하거나 학인들의 공부방이 모자랄 일은 결코 없다. 불국사 강원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 편이다. 1975년 당시 조실로 오셨던 월산 스님께서 선교쌍수를 강조하여 선방과 강원을 열었다. 강원에 거는 기대와 투자도 커서 내놓으라는 강사를 두루 모셨던 전력이 있다. 불국사의 사격도 높아졌고 교구본사도 기림사에서 불국사로 옮겨왔다. 관광지의 어수선했을 던고 강원이 안정된 것은 2002년[2005년이다. 필자 주] 겨울 덕민 스님이 강주로 온 다음부터라고 전해진다. ... (중략) ...

불국사 강원의 특색은 철저한 한문 원전 교육을 꼽는다. 덕민 스님은 지곡서당으로 유명한 태동고전연구소[泰東書舍이다, 필자 주]에서 동양고전을 두루 익혔다. 학인들은 스승으로부터 밝은 눈으로 한문 경전을 새기고 익히는 경험을 배워갈 수 있다. 경을 읽을 때 불교 교리는 물론이고 유학과 노장사상뿐 아니라 한시까지 두루 겸하여 참조하는 것이 강주 스님의 독특한 교육방식이다. 내전과 외전에 두루 강한 것이 불국사 승가대학 교육이다. “강주 스님이 제일 강조하는 것은 경전을 마음으로 새기고 입으로 소리 내서 읽는 간경입니다. 간경을 하려면 우선 뜻을 환히 알아야 하고, 소리 내 읊음하려면 한문을 철저히 새겨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뜻이 돌아가야 하고 마음이 집중돼야 제대로 된 간경이 가능합니다.” 학감 현학 스님은 간경을 강조한 후부터 강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전했다.

덕민 스님은 자신이 스승으로부터 배우던 시절 『서장』을 천 번을 읽으니 자연히 뜻이 통하여 문리가 생겼다고 하였다. 배운다는 것은 거듭거듭 반복하여 마음에 길이 나는 일이니, 길가는 법을 익히면 다른 길을 걸을 때도 쉬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는 알지 못하지만 후에 친릿길을 갈 때는 첫걸음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마련이다. 강주 스님이 간경을 강조하는 것은 배움의 방편뿐 아니라 학인을 위한 수행의 방식으로 삼기 때문이다. 강원에서 학인이 잘못을 범하면 간경으로 참회를 삼는다. 스님은 “사고를 처야 배움의 기회가 된다.”고 강조했다. 불국사 강원에선 잘못이 큰 발심과 수행의 전기가 된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허물이 되는 일도 어떤 이에겐 약이 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간경과 독경은 불국사 강원의 주된 일과이다. 학인들은 누구나 새벽에 불이 끝나면 부처님 가르침을 소리 내 읽는다. 학과 시간이 끝나면 오후 2시간은 또다시 소리 내 경을 읽고, 저녁 예불이 끝난 후에 독경으로 일과를 마감한다. 덕분

에 사중에는 부처님 경전 읽는 소리가 그칠 틈이 없고 관광객의 어수선향도 수행처의 담을 넘지 못하게 됐다.<sup>62)</sup>

학장 덕민, 학감 현학, 강사 성화, 교무 정민 등 강원 교역자들의 승가교육에 대한 열정과 정성이 잘 드러난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국사 승가대학은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즉 입학하는 학인수가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계종의 「승가대학 운영에 관한 령」에서는 승가대학의 최소 정원을 ‘학년 당 10인 이상, 총정원 40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에 제정한 규정으로 2019년 5월 총 7차례의 개정 때까지 이 정원 규정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2018년 조사 결과 전국 14개 사찰승가대학 가운데 학년별 정원 10인 이상의 규정을 충족한 곳은 단 2곳(통도사·운문사)에 불과하였다.<sup>63)</sup> 삼보사찰이라고 하는 통도사는 48인, 해인사는 33인, 송광사는 23인에 불과하여 이곳마저도 종법령의 학인 정원수에 미달하였다.

사찰승가대학에 입학하는 학인수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입학생 현황을 보면 운문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도사 12명, 송광사와 불국사가 8명, 해인사·동학사·범어사 7명, 봉녕사·화엄사·청암사 6명, 동화사·수덕사·법주사 3명, 쌍계사 2명 등이었다. 당시 진광(교육원 교육부장)은 이러한 현실에서 기본교육기관 수를 조정하는 등의 대폭적인 개편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대해 강원교역자들은 임의로 승가대학 수를 조정하는데 한결같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과거의 전통강원과 같이 질적 향상과 내실을 기하는 자율 운영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출가자의 감소는 종단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난 30년간(1991~2020년) 출가자[수계자]가 75% 가량 줄었다. 1997년에는 517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31명에 불과하였다.<sup>64)</sup>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현대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와 맞물려 있다. 사실 국가도 종단도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국가가 나서서 인구 감소를 막아보려 온갖 노력을 기울여도 좀처럼 나아지

62) 『관전』, 봉은사, 2012. 9.

63) 「조계종 승가교육 개선 방안」 세미나,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교육위원회, 2018. 7.12.; 「10명 정원 채운 승가대학, 전국 14개 중 단 2곳 불과」, 『법보신문』, 2018.7.18.

64) 「조계종 30년 출가자 현황」, 『법보신문』 2021.5.12.

지 않는다. 종단과 사찰이 힘을 기울여 출가를 권장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승가대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IV. 불국사의 강주와 강사

불국사의 역사에 등장하는 강사는 매우 많다. 천 삼백년이 넘는 오랜 세월 화엄불국토를 건설하고자 했던 명안종사(明眼宗師)들의 강경과 독경 소리가 무설전 곳곳에 깊이 서려 있다. 8세기에 등장하는 표훈과 유가는 이곳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였고, 9세기 말 삼성강원이라는 강원 이름의 주인공이 되었다. 고려·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강사들이 불법의 진리를 탐독하고 강설하였지만 아쉽게도 전하는 자료는 거의 없다. 절에 관한 기록들은 대부분 가람의 중수와 중창, 불상과 석탑의 조성에 관한 사실만을 적고 있다.

다만 근현대 이후 이곳에서 강석(講席)을 펼친 십 수명의 강사를 확인할 수 있다. 사찰의 역사에 등장하는 강사를 모두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sup>65)</sup>

- 통일신라시대    표훈·유가대덕
- 1960년            진용, 「초발심자경문」 등 강의
- 1961년            설봉, 능엄경 강의
- 1966년            강주 김철수(金哲守)
- 1975~1978년    강주 범공(法空)
- 1978~1979년    강주 범룡(梵龍)
- 1979~1982년    강주 운기(雲起)
- 1982~1984년    강주 재선(在禪)
- 1984~1994년    강주 상묵(象默)
- 1994~1996년    강주 용문(龍門)
- 1996~ ?           강주 지욱(智旭)

65) 종단의 법령에 따라 승가대학 소임자의 호칭은 강주, 강사, 중강에서 학장, 정교수, 부교수 등으로 변화하였다. 법령이 바뀌면서 불국사에는 강주와 학장이 병존하는 시기도 있었다. 여기서 사용하는 ‘강사’는 지금과 같은 직위의 뜻이 아니라 전통적인 의미의 ‘경을 설하는 스승’이라는 의미이다.

- 2002~2005년 학장 응각(應覺)
- 2005~현재 승가대학원 원장 덕민, 승가대학 학장 정수, 학감 성화, 교수 상락, 일선.

이 가운데 강주(학장)를 역임한 몇몇 분들의 간략한 행장을 소개한다.

○ 범공

범공 재학(法空在學, 1918~2002)은 1975년 불국사 승가학원 개원 당시 초대 강주를 맡아 1978년까지 역임하였다. 서울 출생으로 1935년 경기도 양주 봉선사에서 득도하였다. 1940년 서울 안암동 대원암에서 영호율사(석전 박한영, 1870~1948)를 계사로 보살계 및 비구계 수지를 하였다. 범공은 박한영 스님에게서 공부하던 시절을 가장 소중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겼다. “한영 스님께서는 항상 출가할 때의 마음을 잊지 말고 틈나는대로 머리를 만져보라고 했지. 또 경학을 하면 서도 참선을 하라고 했어.”<sup>66)</sup> 범공은 스승의 말을 잊지 않고, 실천하여 수선안거 20하안거를 성만하였다. 당시 개운사 대원암은 최고의 강원이었고, 1회 졸업생 청담을 비롯하여 큰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었다.

1941년 동국대 문리대에 입학하였으나 일제가 학병을 차출하기 위해 기승을 부리자 이를 피해 광릉 봉선사로 은신하였다. 이곳 홍법강원(弘法講院)에서 운허 강백으로부터 대교과를 수료하였다.

나의 은사인 운허 스님께서는 선농일치를 주장하셨지. 낮에는 꼭 밭에 나가 일을 했지. 그렇지 않으면 수행자는 제대로 된 수행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 많은 수행자들이 먼저 간 스님네들의 공부방식을 따르고 실천해야해. 이 시대 수행자들은 물질의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래서 수행이 어려운 거야. 물론 시대적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수행이 아니겠어. 이제 수행자들도 초발심으로 돌아가 일하고 수행하는 올곧은 정신을 통해 진정한 수행처로 되돌아가 가야해.<sup>67)</sup>

1945년에 경기도 양주 석굴암 주지를 맡았고, 1947년에 경기도 교구교무원 교무에 선임되었다. 1947년 불교중앙총회의원을 지내고 1948년에 불교중앙총무원

66) 「수락산 도안사 범공 스님」, 『불교신문』 1997.9.2.

67) 「우리 스님, 도안사 범공 스님」, 『불교신문』 2002.2.15.

법계고시에 합격하여 대덕법계를 받았다. 1949년에 동국대를 졸업하였다. 1950년 경기도 가평군 현등사 주지. 1952년 동국대 재단 서무와 도서관 사서주임 역임. 1964년 이후 법주사 강원 강주, 백양사 강원 강주, 불국사 강원 강주, 서울 청룡사 강원 강주, 전남 구례 화엄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였다. 1981년 대구 동화사 직할 포교당 보현사 포교사를 지냈다. 1982년부터 1994년까지 도선사 신달학원 강사를 맡았다. 1995년부터 도안사 조실을 지냈다. 법공은 생전에 “이생에서 사람 몸 받고 출가해 좋은 스승 복까지 받았으니 그야말로 나는 복이 터진 셈입니다. 그리고 평생이다시피 한 많은 시간을 강원에서 부처님 말씀을 출가 학인들에게 전달하면서 나름대로 선방에서 20안거를 마쳤으니까요.”<sup>68)</sup>라고 하였다.

#### ○ 윤기

윤기(雲起, 1898~1982)는 1979년부터 1982년까지 강주를 역임하였다. 전북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에서 태어났다. 16~17세 무렵 선운사 주지 경암(景庵) 문하로 출가하여 1915년에 사미계를 받았다. 경암은 윤기의 남다른 충기를 발견하고 순창 구암사의 박한영에게 보냈다. 구암사는 당시 교학의 중심지였고, 윤기는 이곳에서 교학을 정수를 전수받을 수 있었다. 이후 신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박한영의 권유에 따라 윤기는 서울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여 1924년에 졸업하였다. 1926년 박한영은 서울 개운사의 대원암에 ‘조선불교중앙강원’을 설립하여 교학을 전파하였다. 그 역시 참여, 수학하였다. 1931년 박한영은 동국대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 교장에 선임되었고, 윤기 역시 해화전문학교를 졸업하였다. 그는 스승의 권유로 일본 유학을 다녀왔다. 박한영은 제자가 선진불교학을 배워와 대학강단에서 널리 펼치기를 기대하였다.

68) 「겨울 먼지 닦듯 삼독 녹여야 불자의 삶, 법공 스님」,  
<https://blog.naver.com/ppm0310/11712050>



운기스님 강의 중, 불국강원



운기스님 학인들과 함께

그러나 운기는 귀국 후, 옛날 백파 공선(白坡巨蕪, 1767~1852)선사의 행장을 따라<sup>69)</sup> 전라도에서 교학을 강설할 계획을 스승에게 아뢰고 선운사로 낙향하였다. 1934년 선운사의 주지로 있으면서 교학을 펼쳤다. 1936년 38세에 백양사 강원의 강주가 되었고, 이해에 박한영을 법사로 대덕법계를 받았다. 이듬해 1937년에는 한국불교의 화엄종주인 설과 상인, 백파 공선, 설두 유형, 그리고 박한영을 잇는 전강강백(傳講講伯)이 되었다. 한편 이 무렵 운기는 정읍포교당에 대원공민학교(大願公民學校)를 개설하여 야학을 시작하였다. 주권상실의 시대에 가난한 청소년들을 교육시키려는 민족의식의 발로였다.

1945년에는 정읍 내장사에 머물렀다. 이 해에 스승 박한영이 내장사로 내려왔고 입적하는 1948년 2월까지 스승과 제자는 함께 지냈다. 박한영은 자신의 경책 등 일체의 유품을 운기에게 전하고 전강의 법맥을 잘 계승하라고 당부하였다.<sup>70)</sup> 박한영과 운기는 불가의 스승과 제자로서의 모범은 물론 영원히 전해져야 할 아름다운 선연(善緣)이다.<sup>71)</sup>

69) 백파는 일생을 선운사와 지리산 화엄사, 장성 백양사, 해남 대흥사, 구암사 등 호남의 명찰을 오가면서 자신이 배우고 깨달은 선교를 후학들에게 전수하고, 구암사에서 저술에 심혈을 기울였다. 선사는 『작법귀감』, 『선문수경』, 『법보단경요해』, 『고봉화상선요사기』, 『수선결사문』, 『오종강요기』, 『금강팔해경』, 『구암집』, 『여고가석』, 『식지변설』, 『선문염송집사기』, 『경덕전등록사기』, 『다비설』 등 많은 저작을 남긴 대문장가였다.

70) 석전이 운기에게 내려준 법호와 전법계 실물이 선운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석전 박한영』, 종결·혜봉 공저, 신아출판사, 2016, pp.596-597.

71) 법철, 『운기대강백 행장기』, 『독보건곤, 운기대강백 행장기』, 운기문도회 편, 도서



1951년에는 종립학교인 전북 금산 중·고등학교 교장을 맡아 청소년 교육에 노력하였다. 운기는 이 시기를 회고하며 “대학에서 일하는 것보다 낙후한 시골의 청소년들을 교육하는 것이 백번 옳다고 판단하였다.”<sup>72)</sup>고 하였다. 1958년에는 다시 선운사 주지를 맡았다. 주지이지만 직접 대중을 이끌고 농사를 지었다. 사찰 운영은 시주의 보시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는 의지였다. “수행자들은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아야 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신도들의 시주만을 바라서는 안된다. 수행자들은 모두 일일부작(一日不作) 일일불식(一日不食)의 정신으로 살고, 근검절약 정신으로 사찰운영을 하고, 경전을 손에서 놓지 않는 정신을 가지고 불교학을 공부하고, 계몽정신으로 후학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고 하였다.

1970년부터는 서울 봉은사에 주석하며, 동국역경원의 역경위원으로서 대장경의 한글 번역에 힘을 쏟았다. 1975년부터 1982년까지는 해남 대흥사와 경주 불국사 불국강원의 강주로 후학양성에 진력하였다. 운기는 1982년 세수 84세, 법랍 68년으로 입적하였다. 1986년에 미당 서정주가 비문을 찬하고 선운사에 비를 세웠다. 그가 남긴 유묵과 유품 등을 선일(禪一)이 계승하여 현재 인천 법명사 명상박물관에 잘 보전하고 있다.

#### ○ 상묵

상묵(象默, 1937~2000)은 1984년부터 1994년까지 11년간 불국사 강원의 강주를 지냈다. 상묵은 대전 가양동에서 태어났다. 천성이 영민하여 10세 이전에 사서삼경을 통독하였을 뿐 아니라, 출가 전부터 여운 노장에게 교학을 사사하였다. 1953년에 공주 마곡사 서운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다. 출가 신분이었지만 뜻한 바 있어 부산 해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에 진학하였다. 1961년 용주사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에 김석농을 법사로 전강을 받았다. 이 무렵의 상묵에 관해 사제인 세연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관응 스님이 용주사 주지를 하실 때에도 강을 열었는데, 그때 배우신 스님에 의룡 스님과 상묵 스님이 있습니다. 의룡 스님은 서운 스님에게 건당을 하였는데, 안성에 토굴을 짓고 살다가 몇 년 전에 입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사형인 상묵 스님도 용주사에서 배웠는데, 관응 스님이 무문관에 들어가

출판 선운사, 2015, pp.65-66.

72) 『독보건관, 운기대강백 행장기』, 앞의 책, p.69.

시는 바람에 오래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상묵 스님은 지금은 잊혀진 스님이지만 이 스님은 머리가 천재와 같은 스님이었어요. 본래 동진출가를 해서 수덕사에 있었는데, 금봉 스님이 “너는 서운 스님 상좌가 되라.”고 해서, 인연이 되었다고 그래요. 정화 전에 운허 스님이 진주 의곡사에서 월운 스님, 지관 스님, 봉주 스님, 상묵 스님을 가르쳤는데, 그때도 기억력이 비상하여 운허 스님이 인정을 하였답니다. 그러다가 상묵 스님은 성균관대 한문학과에 다녔는데, 지도교수가 동국대 대학선원장을 하시던 탄허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이 수좌가 매우 영특하다는 칭찬을 하였대요. 그래서 서운 스님이 상묵 스님을 박사를 만들려고 했어요. 내가 갑장사에서 행자를 할 때 방학이면 내려왔는데, 저는 그때 이 스님의 천재적인 기억력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무렵 스님 중에는 최고라고 보고 싶어요. 상묵 스님은 동화사 강사도 했고, 은혜사 강사도 하셨지요.<sup>73)</sup>



상묵스님 강주시절, 1992년 대교과 졸업식

상묵은 1962년에 부산 범어사에서 동산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1965년 대구 동화사 재무, 1966년 과천 연주암 주지, 1969년 서울 봉천동 관악사 주

73) 세연스님(전등사 조실), 「너무 존경스러운 스님」, 『관음대종사 황악일지록』, 관음대종사 문도회 엮음, 2018, pp.411-412.

지 등을 역임하였다. 1983년 무렵<sup>74)</sup> 불국사 강원의 강주를 맡았다. 1994년 동국 역경원 역경위원, 97년 종립 승가대학원 교수 등을 역임하였다. 1995년부터 강학 전등사 조실로 머물며 오전에는 간경하고, 오후에는 『금강경』, 『법화경』, 『반야심경』을 금분 사경하였다. 상묵은 1996년 은혜사에 설립한 종립 승가대학원에서 후학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2002년 당시 승가대학원장 무비는 10명의 강사를 배출하는 1기 졸업식을 앞두고 『불교신문』과 인터뷰를 하였다. 무비는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해 아낌없이 강의를 맡아준 각성 스님, 상묵 스님, 지안 스님, 통광 스님, 덕민 스님, 해남 스님과 외국어 등 외전 강의를 해준 분들께 무엇보다 고맙다”<sup>75)</sup>고 밝혔다. 상묵은 2000년 12월 28일 법랍 47세, 세납 64세로 전등사 극락암에서 열반하였다.

그는 불교텔레비전(BTN)에서 60여 회에 걸쳐 『금강경』을 강의하였다. 2007년 전등사에서 이 영상을 녹취하고 글로 풀어 『상묵스님의 금강경』이라는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이 책의 추천사를 후배 덕민이 썼다.

상묵 강백은 대선각인(大先覺人)으로서, 나는 항상 묻고 질정(叱正)을 구하는 동반자 겸 후배였다. 승속을 넘나들면서 무애자재한 스님의 풍모는 처염상정(處染常淨)의 둥근 연잎과 같았다. 말년에 합천 초계(草溪)에서 1년 여 모시고, 당송팔가(唐宋八家) 주역전(周易傳) 구소수간(歐蘇手柬) 등을 강론했으며 『중용』의 ‘費而陰章 鳶飛戾天 魚躍于淵’의 소제(所題)로써 도의 중화(中和)를 얘기하면서 밤을 지새웠고, ‘水流濕 火就燥 雲從龍 風從虎’라는 역(易)의 이치를 선가의 초월적 인과로 승화시키면서 고전 속에 함께 우유(優游)하였다.

스님은 평범한 수행인은 알 수 없는 불가사의하고 격조 높은 멋과, 물방울처럼 맑게 구르는 지혜를 지니셨다. 나는 스님 열반 후 불국사 강석을 이어 받았으며, 금년 봄 부도탑에 송(頌)을 지어 새겼고, 또 스님 유작 『금강경』 강의에 감히 추천사를 올리니, 이는 뒤에 남은 자의 몫인가? 만감(萬感)이 스쳐 지나간다.

불국사 학장 손제(損弟) 후학(後學) 덕민(德旻) 삼가 씀<sup>76)</sup>

74) 『상묵스님의 금강경』(조계종출판사, 2007) 행장 소개에서는 ‘1985. 10. 경북 경주 불국사 강원 강주 취임’이라 하였고, 『강원총람』(앞의 책, p.705.)에서는 ‘1983년부터 1994년 4월까지 불국사 승가대학 강사’라고 하여 부임 시기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75) 「인터뷰 종립 승가대학원 원장 무비스님」, 『불교신문』 2002.2.15.

76) 「추천사」, 『상묵스님의 금강경』, 조계종출판사, 2007, pp.2-3.

## ○ 응각

응각(應覺, 1945~)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강주를 역임하였다. 1971년 지중(원로의원, 불갑사 조실 역임)을 은사로, 서옹을 계사로 백양사에서 득도하였다. 1974년에 법주사에서 석암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하였다. 법주사 우룡(雨龍)의 강석에서 『서장』을 배울 때 탈진할 정도로 소리내어 독송하였다. 그래야 잡념이 끼어들지 않고 내용이 제대로 머리에 들어간다고 하였다.

백양사 각성의 강석에서 해남, 통광, 혜권, 보광, 수진 등과 함께 처음 화엄을 배우기 시작한 이후 해인사 강원 대교반을 거쳤다. 다시 대흥사 운기 회상에서 해남, 도형, 제선, 무착 등과 함께 『화엄경』을 공부하였다. 해인사 승가대학 강사, 학감을 거쳤고 1980년에는 불국사에서 운기의 강맥을 전수받았다. 1996년에는 은해사 종립 승가대학원에 1기로 입학, 1999년에 졸업하였다. 위암의 병마와 싸우면서도 승가대학원을 무사히 마쳤다. 스님이 넘은 나이는 배움의 의지에 별 문제가 아니었다. 2002년부터 도제양성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주지 종상의 칭으로 이곳 승가대학 강주를 맡았다.

강주를 맡은 지 1년 반이 지나 응각은 『불교신문』의 인터뷰에 응했다.

- ▶ 스님은 승가대학 강주로서 어떠한 덕목을 학인들에게 가장 강조하는지요.
- 수행자로서 계율을 가장 중시해 지켜갈 것을 가르칩니다. 자고로 수행자는 신심을 내어야 하고, 수행을 해야 하고, 원력을 보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덕목은 커다란 솔을 떠받치는 발(足)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계율이 근본을 이룹니다. 성철스님께서서는 “출가란 조그만 가정과 가족을 버리고 큰 가족인 온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다. 출가의 근본정신은 자기를 완전히 버리고 일체를 위해 사는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요즘은 수행인들 가운데도 자리아타(自利利他) 정신을 망각하고 이기적으로 사는 자리(自利)에 치우치는 이들이 있는 듯하여 안타깝습니다. 계율을 여법하게 지켜나가는 수행자의 참 모습을 견지한다면 출가본연의 자세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sup>77)</sup>

## ○ 덕민

덕민(德旻, 1944~)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승가대학 학장을 맡고 있다. 전남 보성에서 태어나 1956년 범어사에서 우룡 종한(雨龍鍾漢)을 계사로 사미계를, 19

77) 「불국사 승가대학 강주 응각스님」, 『불교신문』 2003.10.17.

68년 범어사에서 석암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 1965년 청암사 강원 대교과를 졸업하고 1970년 범주사 강사를 역임하였다. 고봉과 우룡, 고산 문하에서 정진하였다. 그는 박한영 스님으로부터 고봉 태수, 우룡 중한으로 계승되는 전통 강맥을 계승하였다.



덕민스님 강의 모습

1972년 태동고전연구원을 수료하였고, 1978년 울산 학성선원을 맡아 중창불사를 이룩하였다. 1973~1987년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1899~1988)의 태동서사(泰東書舍)에서 한학을 사사하여 불경과 유학을 두루 섭렵한 독보적인 분이다. 1988년~1997년 쌍계사 강주, 1999년~2003년까지 범어사 승가대학 학장을 지냈다. 2005년 학장에 부임하여 현재까지 가장 오랫동안 불국사의 강원을 지켜오고 있다. 2017년 기림사에 개설한 성림금강 한문 불전 승가대학원 원장을 맡았고, 2018년에 조계종단 최고의 범계인 대종사 지위에 올랐다. 덕민은 현대사회에서 세속적 학위를 일체 거치지 않고 대강백에 오른 드문 분이다. 산중에서 승가를 가르치는데 전념하여 일반분자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승가에서는 학문적 명성이 자자하다. 선시와 당·송대의 한시를 수백 편 암기하고 노장, 주역 등 한학에도 정통하다.<sup>78)</sup>

지는 50년 전 경봉 노스님께 와서 “지도 명정 스님처럼 참선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강(講) 하는 씨앗이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강 씨앗이 따로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이놈아, 너는 헛소리 말고 경을 봐라. 고봉 스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강맥을 이어야지, 선방에 오지 말아라.” 하셔서 나이 80이 다 되어 가는데 뼈가 부러지도록 참선 못 한 것이 후회스럽습니다.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경을 잘 봐서 경안이 열리면 그것도 초견성하는 것이다.”<sup>79)</sup>

2020년 12월 반산(盤山)이 30여 년 동안 『화엄경수소연의초(華嚴經隨疏演義鈔)]』를 번역한 『화엄경청량소(華嚴經淸涼疏)]』를 봉정하는 자리, 통도사 극락암에서 덕민이 범문한 내용이다. 근현대불교의 대선사 경봉(1892~1982)은 덕민을 ‘강(講)하는 씨앗’이라고 하였다. 50년 전 20대의 젊은 승가는 대선사의 말 그대로 지금도 불국사에서 ‘강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 V. 맺음말

출가자를 수행자라고 한다. 출가는 곧 수행이기 때문이다. 수행은 깨달음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수행의 완성은 깨달음으로 그치지 않고 하화중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수행은 깨달음과 행화(行化)의 시작이다. 한국불교는 출가자의 수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선원과 강원이 대표적이다. 삼국 시대 불교수용기부터 교학 연찬은 출가자의 기본이었고, 통일신라말의 선수행과 함께 한국불교의 선교겸수 전통을 이룩해왔다.

교학 연찬은 강원에서 이루어진다. 즉 강원은 승가교육을 대표하는 곳이다. 불교수용과 함께 강원이 존재하였지만, 이 ‘강원’이라는 정식명칭이 확인된 사례는 지금까지 9세기 말의 불국사 기록이 최초이다. 처음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만큼 불국사의 강학전통이 오래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표훈·유가·원측의 세 성인을 기리는 의미에서 ‘삼성강원’으로 이름 붙이고, 화엄불국토의 교학을 펼친 곳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후의 강원에 관한 역사는 전하는 자료가 거의 없다. 1740년 절에는 47동이 넘는 전각과 누각, 회랑이 장엄을 이루고 있었다.

78) 『강원총람』, 앞의 책, p.707.

79) 「명법문 명강의,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스님」, 『불교신문』 2020.12.7.

이 큰 가람에서 많은 수행자들이 강원을 오가며 교학을 탐마하였다. 오늘날 강원교육의 사집, 사교, 대교를 축으로 하는 이력과목(履歷科目) 체계가 이미 17세기에 수립되어 있었으므로 불국사에서든 이에 따른 강학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근대 불국사의 강원교육은 1913년부터 확인된다. 이때의 ‘불교강숙’은 통도사 명신학교의 학감을 역임한 송설우의 원력이었고, 당시 승가교육의 모범이라 칭송받았다. 현대들어 강원은 1975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1973년까지의 대대적인 중창을 토대로 도제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월산의 발원에서 비롯되었다. 이보다 앞선 1960년 행자와 사미를 망라한 강원교육을 진행하였고, 이듬해 1961년에는 『벽암록』 강좌를 개설하자 많은 수행자들이 몰려 들었다. 불교정화의 혼탁한 시기에도 정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학 연찬의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1966년에는 전문강원에서 7인의 학인을 배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강학전통을 계승하여 1975년 ‘불국사승가학원’으로 다시 개원하였다. 이후 대한불교조계종의 교육체계에 따라 승가대학으로 재편성하면서 1976년 제1회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5회에 걸쳐 수백 명의 젊은 승가를 배출하였다.

이러한 강학 전통의 중심에는 강주[학장]와 강사[교수]가 있었다. 선지식을 찾아 배움을 청하는 전통은 교학도 다를 바 없어 빼어난 강사를 찾아 많은 이들이 불국사 강원에서 경을 펼쳤다. 통일신라의 표훈과 유가, 1913년의 송설우, 1960년의 진용, 1961년의 설봉, 1966년의 김철수, 1975년의 범공, 1978년의 범룡, 1979년의 운기, 1982년의 재선, 1984년의 상묵, 1994년의 용문, 1996년의 지육, 2002년의 응각, 그리고 현재의 승가대학원 원장 덕민, 승가대학 학장 정수, 학감 성화, 교수 상락, 일선 등이다. 불국사의 강학 전통은 이들의 강석에서 면면히 계승되고 있다.

근래 들어 출가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승가대학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조계종 교육원은 이러한 현실에서 사찰 승가대학을 축소하는 등의 개편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지혜로운 해결책을 강구하여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불국사와 같은 명찰의 강학 전통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강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1997.
- 『관음대종사 황악일지록』, 관음대종사 문도회 엮음, 2018.
- 『불교신문으로 본 조계종단 50년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신문, 2012.
-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6.
- 『상묵스님의 금강경』, 조계종출판사, 2007.
- 『조계종사 근현대편』,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2001.
- 김광식, 「월산의 생애와 사상」,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 \_\_\_\_\_, 『범어사와 불교정화운동』, 영광도서, 2008.
- 김상현, 「불국사의 문헌자료 검토」,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 \_\_\_\_\_, 「석불사 및 불국사의 연구 - 그 창건과 사상적 배경」, 『불교연구』 2, 한국불교연구원, 1986.
- 능허, 「강원의 교육이념 및 목표에 대한 고찰과 진단」, 『승가교육』 4,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2001.
- 문순회(퇴휴), 「한국 근현대 승가교육사 연구」, 중앙승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선우도량 한국불교근현대사연구회, 『22인의 증언을 통해 본 근현대 불교사』, 선우도량출판부, 2002, p.50.
- 송암지원, 『광덕스님시봉일기』 4, 도피안사, 2004.
- 양관스님, 「통도사 승가대학의 역사와 문화」, 『대각사상』 15.
- 여천 무비 엮음, 『拈花室 그림자』, 연화실, 2008.
- 운기문도회 편, 『독보건곤, 운기대강백 행장기』, 도서출판 선운사, 2015.
- 이강근, 「불국사의 목조건물과 수리·복원의 역사에 대한 연구」, 『경주문화연구』 7, 경주대 경주문화연구소, 2005.
- 이문기, 「최치원 찬 9세기 후반 불국사 관련자료의 검토」, 『신라문화』 26,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05.
- 종걸·해봉 공저, 『영호 정호대종사 일생록, 석전 박한영』, 신아출판사, 2016.
- 최영성, 『역주 최치원 전집』, 아세아문화사, 1999.
- 한상길, 「근현대 불국사의 사격」,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 한태식(보광), 「월산 큰스님의 선사상(1) - 수행과정과 참구화두를 중심으로」, 『대각사상』 32, 대각사상연구원, 2019.
- 효 탄, 「한국불교 강맥전등의 고찰」, 『강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1997.



## Abstract

## The Bulguksa Temple's Saṅgha Education Tradition

Han, Sang-gil

(Assistant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in Dongguk Univ.)

The Bulguksa Temple is one of the most famous temples in Korea. It is the leading cultural heritage representing the history and tradition of Silla, and furthermore, the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keeping the essence of the brilliant Silla Buddhist culture. It should not be forgotten that this status of Bulguksa Temple is the result of harmonizing internal performance and education along with the reconstruction of an external pavilion.

The history and culture of the temple are created by the efforts of the saṅgha's who constantly devotes himself through the foresight and practice of daily life. In this sense, this article focuses on Bulguksa Temple as a practice space. The practice of teaching takes place in Gangwon. In other words, Gangwon is a representative place for saṅgha education. This official name "Gangwon" has been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so far, with Bulguksa records at the end of the 9th century. The meaning of the beginning is very significant. This is because it means that at Bulguksa Temple has a long tradition of teaching.

Gangwon education of modern Bulguksa Temple has been confirmed since 1913. In 1960, Gangwon education covering pedestrians and sāmaṇera was conducted, and many practitioners flocked. In 1975, it was reopened as Bulguksa Saṅgha University in 1975 according to the origin of Zen master Wolsan,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fostering apprentices. After that, it was reorganized into Saṅgha University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system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starting with the first graduate in 1976, it produced hundreds of young saṅgha's 45 times until 2020.

At the center of this tradition were Gangju and the instructor. The tradition of asking for learning in search of an outstanding saṅgha is no different from teachi

ng, so many people visited Bulguksa Temple Gangwon in search of a good instructor. Master Pyohoon, Yuga of Unified Silla, Master Seolwoo in 1913, as the current saṅgha graduate school president, Master Deokmin, the tradition of education Bulguksa Temple has been steadily inherited.

### Key words

Bulguksa Temple, gangwon, Saṅgha University, Three Saints Gangwon, Master Pyohoon, Master Yuga, Master Wonchuk, Zen master Wolsan, Master Woonki, Master Deokmin.